美 하버드생들 "K-불교 홀릭"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진관사를 찾은 HRO단원들은 한국전통 불교체험을 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HRO 단원 100여 명, 진관사 방문
명상·사찰음식 등 불교문화 체험
계호 스님 "원대한 꿈 펼쳐지길"

"너무 멋있습니다. 최고예요. 원더풀!"

진관사를 찾은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이 그림처럼 펼쳐진 북한산 자락을 바라보며 감탄을 쏟아냈다. 처음 맛보는 사찰음식에도 "맛있어요"라며 연신 엄지를 들어 올렸다. 학생들은 마음껏 자연과 어울리고 한국 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아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이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와 연계해 3월 12일 서울 진관사에서 내한 공연차 방한 중인 하버드대 래드클리트 오케스트라(HRO) 단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HRO는 1808년 설립돼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유서 깊은 오케스트라 단체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120명의 하버드대 학부생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매년 4차례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격년제로 문화 체험을 결합한 해외투어도 진행하고 있다. HRO의 한국방문은 2008년 창립 200주년을 기념한 내한 공연 이후 16년 만이다. 3월 9일부터 18일까지 방한 일정 중 서울, 전주, 통영에서 총 3차례 공연이 예정돼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본격적인 공연 일정에 앞서 문화 체험의 일환으로 진관사를 찾은 학생들은 한문화체험관 등 경내 이곳저곳을 둘러봤다. 진관사 템플스테이 국장 선우 스님이 능숙한 영어로 진관사의 역사와 사찰음식이 가진 의미 등을 설명했고, 학생들은 스님의 안내에 귀 기울였다.

한문화체험관 지하 흙다움으로 자리를 옮기자 환영식이 이어졌다. 진관사 홍보영상 시청과 인사 말씀, 조계종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과 진관사수륙보존회스님들의 수륙재 시연, 진관사 명상교수 혜주 스님(동국대 WISE캠퍼스 아동청소년교육학과 교수)의 '내면의 평화를 찾는 명상' 등이 진행됐다. 싱잉볼 소리에 학생들은 지긋이 눈을 감고 숨을 가다듬으며 내면을 돌아보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특히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은 학생들에게 오색실을 직접 묶어 주며 건강과 행복을 축원하기도 했다.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도 천년도량 진관사의 자연은 예술과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귀 기울이고, 명상을 통해 내가 나를 알아가는 선물을 드릴 것"이라며 "나를 만나는 귀중한 추억으로 여러분들의 원대한 꿈을 펼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내면의 아름다운 영감과 만나기를 기도한다"고 격려했다.

페데리코 코르테제 HRO 지휘자는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오랜 역사와 문화를 만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수륙재 시연은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닉 HRO 학생회장도 "한인교포 3세이지만 한국방문은 처음이다. 한국 문화는 미국에서 영향력이 커 늘 궁금했다. 오늘 이렇게 문화를 경험하게 돼 영광스럽다"며 "수륙재를 시연해 주신 스님들을 저희 공연에 꼭 초대하고 싶다"고 밝혔다.

템플스테이의 마지막 일정은 '진관사표 사찰음식'으로 점심공양. 봄동겉절이, 시금치무침, 단호박튀김, 민들레겉절이, 연근조림, 만두구이, 두부구이, 가죽부각, 도라지무침, 마·당근·브로콜리찜 등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에서 준비한 다양한 메뉴를 맛보며 사찰음식의 진수를 만끽했다.

힐링과 재충전 시간을 제공한 진관사 템플스테이는 하버드대 학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조슈아 학생은 "지난해 단원들의 투표를 통해 한국으로 공연을 오게 됐다. 한국에 방문했던 선배들에게 추억을 전해 듣기만 했었는데, 이곳에서 우리만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어 기쁘다"며 "진관사를 비롯해 경복궁, 전주 등 다 좋았다. 친구들에게 한국 여행을 추천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박세린 학생도 "친구들과 같이 한국 사찰을 구경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됐다. 특히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의 반응을 보는 것도 재미있다"며 "스님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줘 더욱 친밀감을 느꼈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영덕문화재단MOU

3월 13일, 명상·웰니스 협력키로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과 영덕문화관광재단(이사장 김광열 영덕군수)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명상과 웰니스(Wellness) 공동사업에 협력키로 했다.

불교학술원은 3월 13일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실에서 '국제명상엑스포-영덕국제H-웰니스페스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태호 영덕문화관광재단 웰니스관광사업분부 본부장이 지난해 개최된 2023년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토크 프로그램 패널로 참석, 동국대 주관 명상엑스포와 영덕군 주관 국제웰니스페스타의 상호 협력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협약을 통해 동국대는 명상의 웰니스화 확장을 도모하고 영덕군은 다양하고 심오한 명상 콘텐츠를 연계해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명상·웰니스 연계 공동사업 개발 및 수행 △교육, 연구, 문화, 관광 등 관련 분야 자원 공유 및 협력 △국제 웰니스 전문인력 양성 △기타 기관 간 상호 협력 등에 협조할 계획이다.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은 "본 협약을 통해 각종 학술대회 등 상호 주관 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명상 및 웰니스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명상은 조계종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활동 분야로, 앞으로 종단과 협업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 배석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지역 소멸과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불교계가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게 돼 기쁘다"면서 "협업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김광열 영덕군수는 "불교와 영덕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은호 기자

동국대, 범산 김법린 60주기 추모다례재

독립운동 투신 · 불교발전 공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불교·정치·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현대사에 큰 업적을 남긴 범산 김법린 선생 60주기를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사진〉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3월 14일 교내 정각원에서 '범산 김법린 선생 60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하고 독립운동과 민족불교 및 동국대 발전에 헌신한 김법린 선생의 헌신과 업적을 기렸다.

중앙학림(동국대 전신) 출신의 김법린 선생은 만당 결성과 조선어학회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르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해방 후 초대 유네스코 한국위원장, 제3대 문교부 장관을 역임했다. 또한 동국대 이사장과 총장을 역임해 불교계 발전과 후학 양성에 진력했다.

추모다례재는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동국대 총장, 김태연 유족 대표가 헌향을,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과 유족들이 헌화를 맡았다. 김진섭 〈동국의 빛 시리즈-김법린〉 저자는 책을 봉정하고 김법린 선생의 행장을 소개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추도 법어에서 "생활불교, 대중불교, 사회불교를 주창한 김법린 선생의 선경지명은 민족의 사상이자 교육의 사상으로 수승하게 나아가는 단단한 원동력"이라며 "동국대는 선생의 정신을 계승, 교육 향상과 세계적인 인재 양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참석 외빈들의 추모사도 이어졌다.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은 김주용 대변인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범산 김법린 선생이 일궈온 평생의 업적을 되새기며 국가보훈부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애국자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하겠다"고 밝혔다.

김법린 선생이 기틀을 마련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한글학회도 추모사에 동참했다.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초대 위원장으로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가장 역동적인 위원회로 만들어주신 김법린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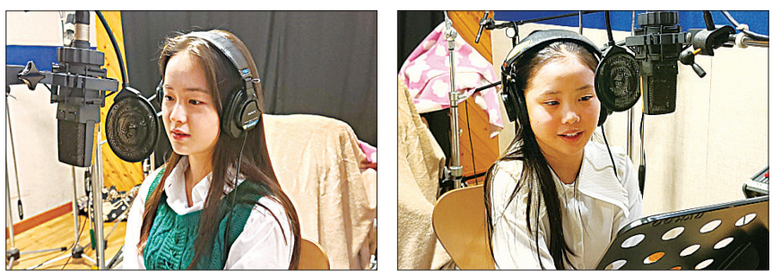
환지본처한 백양사 '도암당 대사 진영'

국외로 유출됐던 '도암당 대사 진영'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김정희)의 긴밀한 협조 및 원 봉안처인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환지본처했다.

'도암사 대사 진영'은 국외로의 유출 시기와 경우는 알 수 없으나 한국전쟁 등 국내 혼란기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2월 16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3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영은 추후 백양사에 봉안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불교성전, 대중이 사랑하는 목소리로 만나보세요"

가수 이소원 · 임지민 녹음
뉴미디어 전법 · 포교에 활력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매일 한 편씩 유튜브 업로드



불교성전을 녹음하고 있는 가수 이소원(사진 왼쪽)과 임지민(사진 오른쪽) 양.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담은 불교성전이 텍스트를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울림으로 다가온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 스님)은 대중이 사랑하는 목소리로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리딩(Reading) 불교성전' 사업을 진행, 매일 경전 말씀 한 구절씩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다.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불교성전을 편안하고 차분하게 읽어주는 1분 30초 이내 짧은 동영상으로 안정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올해 1월 연예인전법단 임혁 배우의 참여에 이어 최근 가수 이소원·임지민 양이 경전 녹음을 마쳤다. 이 시대에 공감받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읽어주는 불교성전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법·포교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수 이소원(16,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양은 불교성전 191편에서 205편까지 15편을 녹음했다. 이 양는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강사로 활동하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불교와 인연을 맺은 모태불자다. "누구보다 불교를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밝힌 이 양은 불교성전을 녹음하는 시간이 스스로의 신행활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처음에는 모든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번만 반복해서 들으면 스스로에게 꼭 필요한 부처님 가르침이 들려올 거예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모든 불자님께 좋은 메시지가 닿길 바랍니다."

특히 고1 새학기를 시작하는 이 양에게 갈등이 생겼을 때 부처님이 알려주는 '화합하는 여섯 가지 방법'은 더욱 뜻깊게 다가왔다. 이 양은 "부처님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배우게 된 것 같다"며 "불교가 더 많은 사람에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가장 잘하는 노래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206편부터 220편까지 녹음한 가수 임지민(11) 양도 신심 깊은 불자 부모님 아래 성장했다. 임 양의 이름은 부모님의 재적 사찰 주지스님이 지어줬을 정도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절을 찾은 그는 부처님께 절을 할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이 기다려졌다.

늘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공부했던 임 양은 이젠 누군가에게 직접 불교성전을 읽어주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11살의 어린 나이로 불교성전 내용을 이해하긴 벅찰 법도 하지만 경전 내용을 곱씹고, 또 곱씹으며 부처님 가르침에 다가가려 애썼다.

임 양은 "몇 번씩 반복해 읽어보면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부처님 말씀이 잘 전해져 듣는 분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읽었다"고 말했다.

부처님 가르침은 임 양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용기도 줬다. "'지도자가 바른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구절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좌우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멋진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들이 녹음한 내용은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매일 한 편씩 업로드되며, 유튜브 '조계종 포교원'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내영 기자

'제8기 대원청년 불자상·동아리상' 시상

불교진흥원, 3억 5700만원 지원
"신규 동아리 개설 등 성과도"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3월 13일 '제8기 대원청년 불자상·동아리상 증서 수여식'을 갖고 147건에 총 3억5700만원의 장학지원금을 전달했다.

대원청년 불자상·동아리상은 청년 불교 활성화와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진흥과 인재양성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개인 및 단체에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2020년부터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841건에 대한 누적 장학금은 총 20억3150만원이다.

이번 제8기 불자상·동아리상 공모에는 대학생, 대학원생, 초·중·고·대 불교동아리 210건이 지원했다. 2차례 심사를 걸쳐 불자상 64명, 동아리상 83곳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동아리가 없는 학교에 동아리를 새롭게 결성하거나 동아리가 있더라도 추가로 동아리를 결성하는 학생의 활동을 참작해 심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신규 동아리 결성을 독려했다.

진흥원은 "장학금 및 활동비 지원을 통해 각급 학교에 새롭게 동아리가 개설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학교마다 다수의 동아리가 개설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